

대장경과 교판

지 창 규*

목 차

1. 교상판석과 대장경
2. 敎判과 宗判
3. 천대 교판과 경전 성립
4. 開元釋敎錄과 대장경의 구성
5. 대장경의 구성 특징과 문제
6. 한글대장경 구성 방향

요 약

본 논문을 통해 대장경과 교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한글 대장경 구성 방향은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체재를 전반적으로 따르면 대체로 무난할 것이다. 대장경과 교판의 교판이 원래는 불타의 경설을 나뉠대로 밝히려는 불교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판에 대한 종래의 인식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오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벽이 높다면 차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

첫째, 한국 대장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원효대사의 교판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저술이 온전하게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남겨져 있지 않고 또 단지 몇 개의 저술을 가지고 그의 교판설을 재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 가장 큰 문제는 일관적인 교판설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고려 제관법사의 오시팔교설을 이용하는 것이 대장경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천태종의 교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

셋째, 의천대각국사의 목록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고려대장경에 의천목록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글대장경이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의천목록과 같은 경록을 중심으로 章疏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신편제종교장총록 (이하 의천목록)은 아무래도 諸宗의 敎藏을 모은 것이기에 삼장의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글대장경 구성에 원효대사나 제관법사의 교판설 그리고 의천대각국사의 의천목록 등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지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우리 스님들의 교판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한글대장경이 지는 뜻을 더욱 배가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한껏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1. 교상판석과 대장경

본 논문은 대장경의 체재와 구성에 교판이 도움이 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장경 구성에 있어서 교판이 어느 정도 활용되었고 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판이란 불타가 설한 가르침[敎說: 經典]을 형식·방법·순서·내용·의의(意義)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지음으로써 교설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법론이다. 교상(敎相) 또는 판교(判敎)라고도 한다.¹⁾ 일체경을 부처님

1) 大正藏 33권, 683중. “敎者, 聖人被下之言也; 相者, 分別同異也.” 교(敎)란, 성인이 중생에게 내려주신 말씀이고, 상(相)이란 敎에 대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同異]을

께서 일대에 걸쳐 펼쳤던 다양한 방식의 가르침이라 전제하고 그 형식·방법·순서·내용·의의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다양한 경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후대에는 경전의 우열비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됨으로써 종판(宗判)이라는 변질된 교상판석(敎相判釋)을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화엄종은 『화엄경(華嚴經)』을 가장 우위에 두는 교판설을 창출했고, 열반종은 『열반경(涅槃經)』을 우위에 두는 교판론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²⁾ 이런 점에서 교판은 배타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특히 唐代에 들어서면서 교판은 자종의 우월성을 입증시키는 도구로 전락되면서 그 본의는 완전히 잃게 된다.

이에 비해 대장경의 구성이라 함은 경전의 분류에 의한 대장경의 편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은 보편성이 가장 그 주안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의 대장경은 대체로 대소승이라는 교판구분을 중심으로 하여 경전을 부류별로 구분한 경전목록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중국 북송의 官版에서 시작된 한역대장경을 고려대장경에서는 그 편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일본의 신수대장경은 대승과 소승의 기존 순서를 경전성립에 따라 초기와 대승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시류를 따라 한글대장경도 초기와 대승의 순서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대장경이나 한글대장경 및 신수대장경 등의 구성은 교판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판설을 이용하여 그 체재와 구성을 꾀한 대장경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근대에 들어 일본에서 전승 기념으로 五時八敎로 대장경을 구성하여 출간코자 한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대장경을 어느 한 종파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종판을 가지고 대장경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보편적인 교판설이라면 대

분별하는 것이다.

2) 교판 일반에 관한 연구논문을 모으면 다음과 같다. : ① 松岡曉洲, 「敎判論の意味再考」, 印度學佛敎學研究, 1985, 12. ② 石津照璽, 「敎判の問題」: その組織的意圖に沿っての解釋, 印度學佛敎學研究, 1958, 3. ③ 林屋友次郎, 「敎判論序說」, 佛敎研究, 1939, 12. ④ 長尾雅人, 「敎判の精神」, 密敎文化, 1949, 3. 등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장경의 구성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관련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교판(敎判)과 종판(宗判)

교판의 주무대는 중국이지만 교판의 기원은 경전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전 가운데 『법화경(法華經)』의 일승삼승설(一乘三乘說)은 물론 『화엄경(華嚴經)』의 삼조설(三照說)³⁾, 『열반경(涅槃經)』의 오미설(五味說)⁴⁾, 『해심밀경(解深密經)』의 삼시설(三時說)⁵⁾, 『능가경(楞伽經)』의 돈점이교설(頓漸二敎說)⁶⁾ 등이 있다.

논사 가운데 용수보살의 현밀이교설(顯密二敎說)⁷⁾·이장교설(二藏敎說)⁸⁾·난행이행이도설(難行易行二道說)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판형태는 중국교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법(法)과 인(人)에 대한 소박한 분류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7세기경으로 내려오면 계현(戒賢:530?~636)⁹⁾과 지광(智光:676년경에 중국에 음)¹⁰⁾에 의해 경전을 시기적으로 분류하는 교판 논의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후한대(後漢代)에 본격적으로 불전 번역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중국불교의 특질인 교판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특히 라집삼장(羅什三藏)의 전역으로 인해 역출경전의 연구와 경전의 전반적인 정리는 당연히 요구되었다. 동진(東晉)시대에 들어 구마라집(羅什三藏)과 보리유지(菩提流支)

3) 『大方廣佛華嚴經(60권)』 「寶王如來性起品」(『大正藏』 9권, 616중).

4) 『大般涅槃經』 「聖行品」(『大正藏』 12권, 411상).

5) 『解深密經』 2 「無自性相品」(『大正藏』 16권, 697상).

6) 『楞伽阿跋多羅寶經』 1(『大正藏』 16권).

7) 龍樹, 『大智度論』 4(『大正藏』 25권, 84하-85상).

8) 龍樹, 『大智度論』 100(『大正藏』 25권, 756중).

9) 法藏, 『華嚴經探玄記』(『大正藏』 35권, 111하); 澄觀, 『華嚴經疏』(『大正藏』 35권, 508); 法藏, 『華嚴五教章』(『大正藏』 45권, 480하).

10) 法藏, 『華嚴經探玄記』 1권(『大正藏』 35권, 111하).

에 의해 창안된 일음(一音)교설¹¹⁾은 역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교관의 붕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대승과 소승 또는 대승경전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교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경전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라집 문하의 수많은 영재 가운데 도생(道生: ?~434)은, 『법화외소(法華義疏)』에서 사종법륜설(四種法輪說)[선정법륜(善淨法輪)·방편법륜(方便法輪)·진실법륜(眞實法輪)·무여법륜(無餘法輪)]을 제창하였다.¹²⁾ 경전 하나하나의 명칭을 들고 있지는 않으나 아함이 선정법륜(善淨法輪), 반야가 방편법륜(方便法輪), 법화가 진실법륜(眞實法輪), 열반이 무여법륜(無餘法輪)을 대표하는 경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화경』을 오히려 무여법륜이라고 하는 것이 도생(道生)의 진의라고 하는 설도 있다. 승예(僧叡: ~439)는 유의(喻疑)에서 사교설(四敎說)[삼장(三藏)·반야(般若)·법화(法華)·니원(泥洹)]을 내세웠다.¹³⁾ 이렇듯 라집삼장의 전역 뒤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교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의(智顓)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법화현의(法華玄義)』 출이(出異)에서 당시에 무성하게 일어난 교관설을 남삼북칠(南三北七)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법화현의』 권10상¹⁴⁾에서 정리한 남삼북칠(南三北七)의 교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호구(虎丘)의 급사(岾師)의 삼시교(三時敎), 종애법사(宗愛法師)의 사시교(四時敎), 정림사(定林寺)의 승유(僧柔)·혜차(慧次)의 오시교(五時敎), 북지사(北地師)의 오시교(五時敎), 보리유지(菩提流支)의 반만이교(半滿二敎), 광통(光統)의 사종교(四宗教), 자궤법사(自軌法師)의 오종교(五宗教), 기사름사(耆闍凜師)의 육종교(六宗教), 북지선사(北地禪師)의 이종대승(二種大乘), 북지선사(北地禪師)의 일음교(一音敎) 등 열 가지 교관을 소개하고 있다.

학과불교가 시작된 이후 혜원(慧遠)¹⁵⁾·지의(智顓)¹⁶⁾·길장(吉藏)¹⁷⁾ 등은

11) 淸涼澄觀, 『華嚴經疏』 1권 (『大正藏』 35권, 508중).

12) 道生, 『法華義疏』 (卍續藏 150권, 999).

13) 僧祐, 『出三藏記集』 5 (『大正藏』 55권, 41중).

14) 智顓, 『法華玄義』 10上 (『大正藏』 33권, 801상-중).

15) 정영사 혜원과 지론종의 교관관에 대해서는 「淨影寺慧遠の敎判論」, 吉津義英, (駒澤大學 佛敎學部研究紀要, 1977, 3); 「地論宗の敎判と佛陀三藏」, 織田顯祐(宗敎研

남북조시대의 여러 학설들을 정리하여 그 나름대로의 교판설을 제시하였다. 소의경전에 따른 자파의 우위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 아니고 불타의 본의에 접근하고자 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파의 소의경론만을 우월시하고 다른 경론들은 열등하다고 하는 우열비교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오시교판(五時敎判)을 주장한 광택사 법운(法雲)은 성실학파에도 속하고, 열반학파에서도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또 그는 『화엄경』을 돈교로 삼아 각별하게 취급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교판 특징은 여러 경론을 정리하는 측면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종파가 이루어지면서 교상판석은 소의경전의 우월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교판(敎判)이 아닌 소위 종판(宗判)이다. 이제 교판은 불타 교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나 분석보다는 자종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순수하게 경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파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종판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 규기(窺基)의 삼교팔종판(三敎八宗判), 2. 법장(法藏)의 오교십종판(五敎十宗判)¹⁸⁾, 3. 담연(湛然)의 오시팔교판(五時八敎判)¹⁹⁾, 4. 종밀(宗密)의 삼종판(三宗判)²⁰⁾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원효대사는, 불교 전체를 우선 삼승(三乘)과 일승(一乘)으로 나누고, 다시 삼승은 삼승별교(三乘別敎)와 삼승통교(三乘通敎)로 일승은 일승분교(一乘分校)와 일승만교(一乘滿敎)로 나누어 교판을 시도하였다.²¹⁾ 그

究, 1987, 3)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6) 智顓, 『摩訶止觀』(『大正藏』 46권, 97하).

17) 吉藏, 『法華遊意』(『大正藏』 34권).

18) 法藏, 『華嚴經探玄記』(『大正藏』 35권, 111중).

19) 湛然, 『法華玄義釋籤』 1 (『大正藏』 33권, 816하).

20) 宗密, 『禪源諸詮集都序』 1, 2 (『大正藏』 48권, 402중-406상).

21) 원효의 교판관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敎判史上에서 본 元曉의 位置」, 이기영(東洋學, 1974, 10)을 들 수 있으며, 사상사적 위치 및 길장과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으로는 「元曉의 敎判論과 그 佛敎史的 位置」, 남동신(韓國史論, 1988, 11); 「元曉의 敎判資料に現われた 吉藏との關係について」, 김창석(印度學佛敎學研究, 1980, 3)이 있다. 또한 균여의 교판관과 관련하여 「高麗均如의 敎判について」, 中條

런데 이러한 원효의 교판을 자종(自宗)을 선양(宣揚)하기 위한 종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효를 화엄종으로 가두어 두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효의 교판은 중국의 종판론(宗判論)을 화회(和會)하고 회통(會通)하여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고려대에 들어 제관은, 오시팔교²³⁾를 통해 교판설을 세우고 있다. 오시팔교는 오시(五時)·화의사교(化儀四教)·화법사교(化法四教)로 이루어져 있다. 교설시기에 따라 나눈 오시(五時)는, 제1화엄시·제2녹원시·제3방등시·제4반야시·제5법화열반시로 이루어져 있고²⁴⁾, 교설방법에 따라 분류한 화의사교는 돈교·점교·비밀교·부정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교설내용에 따라 분류한 화법사교는 장교·통교·별교·원교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오시는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춘 종합적인 분류로 이해되고, 화의사교는 형식적인 분류라고 하며, 화법사교는 내용의 분류라고 한다.²⁵⁾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판이 주로 쓰였던 중국불교에서는 특히 남북조 이후로 북조에서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교판을 꾸몄고 남조에서는 열반경을 중심으로 교판을 엮었다. 그러다가 自宗 중심의 배타적인 성격을 벗어나 비교적 보편적으로 敎相을 밝히려는 노력이 隋代에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교판을 엮은 이가, 천태지의, 가상길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효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스님의 교판은 학파와 종파 중심의 교판관을

道昭(印度學佛敎學研究, 1981, 3); 「均如 華嚴思想研究: 敎判論을 중심으로」, 최연식(서울大學校, 1999 / 泰東古典研究, 1999, 12) 등이 있다.

22) 元曉, 『涅槃宗要』(『大正藏』 38권, 239).

23) 예로부터 타당한 교판이라 인정받아 오고 있으며 역대의 교판 가운데 가장 완비된 교판이라 평가받고 있는 오시팔교(五時八敎)는 지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관법사(諦觀法師)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24) 諦觀, 『天台四敎義』(韓佛全 4권, 518하). “言五時者 一華嚴時 二鹿苑時(說四阿含) 三方等時(說維摩 思益 稜伽 稜嚴 三昧金光 勝鬘等經) 四般若時(說摩訶般若 光讚般若 金剛般若 大品般若等諸般若經) 五法華涅槃時 是爲五時 亦名五味”

25) 諦觀, 『天台四敎義』(韓佛全 4권, 518하). “頓等四敎是化儀 如世藥方 藏等四敎名化法 如辨藥味” 여기서는 화의사교(化儀四敎)를 마치 약(藥)의 처방(處方)과 같고, 화법사교(化法四敎)를 약의 맛을 분별(分別)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벗어나 독자적인 교판설로 경전을 체계적으로 엮고자 하였다. 그러나 唐代에 들어 다시 교판이 자종의 우월성을 드높히고자 하는 뜻으로 바뀌면서 여타의 경전에 대해서는 홀대하게 된다. 화엄종의 오교십종판이나 담연의 오시팔교판과 같은 것이 경전의 서열을 매기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종파가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교판은 자종(自宗)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교판은 더 이상 불교연구방법은 아니었다.

3. 천태 교판과 경전 성립

교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태의 오시팔교이다. 천태지의는, 剖判으로는 열반경의 오시설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는 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化儀의 사교와 化法の 사교를 동원하고 있다. 즉 화의 사교는 비밀교와 부정교를 통하여 돈교니 점교니 하는 분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마경에서 설한 비밀교와 부정교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즉 어느 경전을 돈교라고 분류해도 그 이면에는 점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어느 경전을 점교라고 분류해도 그 이면에는 돈교도 가지고 있다는 식이다. 따라서 돈점이라는 일률적인 높낮이를 가지고 그 경전을 짚 수 없다는 장치이다.

또한 화법사교는 경전을 부류별로 나누는 剖判이 아니고 교설을 요소별로 나누는 명실상부한 敎判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체경에는 藏通別圓이라는 네 가지 교설이 있는데 그것이 경전의 부류마다 다르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화엄경에는 별교와 원교가, 아함부에는 장교만이, 방등부에는 사교 전체가, 반야부에는 장교를 제외한 삼교가, 법화경에는 원교만이, 그리고 열반경에는 사교 전체가 있다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화법사교는 대장경의 구성과는 무관하기에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오시와 화의사교 뿐이다.

오시팔교는 특히 일본에서 승전 기념으로 실제로 오시팔교를 가지고 대장경을 만들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한 두 권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그들은 원대하게 오시팔교를 가지고 대장경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렇듯 천태의 오시팔교에 따라 대장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했지만 현 고려대장경의 부류구분과 그리고 일본의 신수대장경에서 오시팔교의 분류법인 화엄부니 열반부하는 분류형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판설이 전혀 대장경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신수대장경에는 화엄부, 아함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의 분류법이 분명히 활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불교가 천태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에 그러한 천태의 분류법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라고 생각된다.

중국에서 경전 성립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²⁶⁾ 경전성립에 관한 사적 연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던

26)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중국의 교판가들이 경전 성립의 연원을 전혀 몰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교판가들이 경전 성립의 연원을 몰랐다는 점은 전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교판설 가운데 도처에서 경전 성립의 연원과 위배되지 않는 설이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즉 천태사교의에서는 장교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를 정리하고 있다. “번뇌없는 참지혜를 일으켜 34심으로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의 습기를 단번에 끊고 나무보리수 아래에 풀로 자리를 만들어 깔고 앉으시고 열등한 응화신인 1장6척의 부처님을 이루셨다. 범천왕의 청을 받으시고 세번 진리의 수레 바퀴를 굴러서 세 부류의 근기를 구제하셨다. 세상에 머무르신지 80년에 노비구의 모습을 나타내시고서 땀감이 다하여 불이 꺼짐에 무여열반에 들어가시는 것은 곧 삼장교의 부처님의 과위이다. 諦觀, 『天台四教義』(韓佛全 4권, 522하-523상). “次入補處, 生兜率, 託胎, 出胎, 出家, 降魔, 安坐不動, 爲中忍位. 次一剎那, 入上忍位, 次一剎那, 入世第一位. 發眞無漏三十四心, 頓斷見思習氣, 坐木菩提樹下, 生草爲座, 成劣應丈六身佛. 受梵王請, 三轉法輪, 度三根性. 住世八十年, 現老比丘相, 薪盡火滅, 入無餘涅槃者, 卽三藏佛果也. 上來所釋, 三人修行證果, 雖則不同, 然同斷見思, 同出三界, 同證偏眞, 只三百由旬, 入化城耳. 略明藏教竟.” 장통별원의 사교로 일체교설을 나눈 가운데 장교 즉 소승교설을 통해 부처님의 일대를 배대하고 있다. 따라서 통별원의 삼교 즉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와는 별도의 설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교판가들이 경전 성립의 연원을 몰랐다는 추측은 억측이며, 교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말하자면, 교판의 중추 핵심은 경교에 대한 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현(開顯)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 특히 지의의 교판에는 법화현의를 통해 수도 없이 모든 경교를 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것은 물론이다. 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경전의 내용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당시의 각 교관은 자신들이 중시하는 경전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전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뒤에 설해진 것일수록 불타의 진의가 더욱 배어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중시하는 경전을 되도록 뒤로 놓았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²⁷⁾ 이러한 교관관은 현대적 의미의 경전 관과는 각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 성립의 연원과 우연의 일치로 부합되는 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대적 의미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문제는 경전 자체가 지닌 사상의 문제였지 성립의 연원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관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천태의 오시(五時)교관에서 각 시에 년수를 배정하여 불타의 교설을 고찰시키는 것은, 경전이 석존 입멸 이후에 성립하였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교관이 불교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 그 본래의 목적과는 도리어 상반되게 오시교관은 오늘날 그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그 존재의의마저도 상실하고 있다.²⁸⁾ 이러한 문제제기는 근대적 연구방법에 의해 경전의 성립연원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비롯됐고, 그러한 것이 불교의 종합적 특성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된 불교학적 토대를 건립하기 시작한

이야말로 교관이 소의경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관이라는 말처럼 부처님의 교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27) 이러한 점은 중국교관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교관 가운데 유독 천태의 오시팔교만을 비판하려 드는 것은 중국불교의 배경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 교관 자체를 무시하려 드는 것도 중국불교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라고 생각된다. 대소승의 경전들이 무질서하게 전래된 중국불교의 상황아래서 대승과 소승경전 간의 상치는 물론이고 대승경전 간에서도 빚어내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전들을 일정한 질서 위에 체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으며 그러한 체계화를 이루기 위해 각 경전을 분류하는 가치기준으로서의 교상관석이 불교연구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관이 불타의 본의를 찾으려 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교관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8) 關口眞大, 「五時教判論」 『天台教學の研究』, 20면-36면.

1920-30년대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1936년에 佐藤泰舜에 의해 지의 교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²⁹⁾ 이후에 교판은 계속하여 그 신뢰를 거의 상실하였으며 오늘날까지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4. 開元釋教錄과 대장경의 구성

智昇은 개원석교록에서 1076부 5048권을 교리 내용상으로 보살삼장경과 성문삼장경으로 나누고 각각 이것을 다시 경율론 삼장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승경전을 다시 반야, 보적, 대집, 화엄, 열반의 五大部로 구분하고 기타를 두었으며 소승경을 근본사아함, 장아함, 중아함, 증일아함, 잡아함, 기타로 구분하였다. 또 대승의 논서를 釋經論과 集義論으로 나누고 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장경의 효시인 북송의 官版은, 智昇이 지은 開元釋教錄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개원석교록에 수록된 불전들을 새겨 만든 것으로서 총 1076부 5048권이 불전이 13만 枚의 목판에 雕造되어 천자문 순으로 이름불허 480개 함에 차례로 收藏되었다고 한다. 고려대장경은 개원석교록에 수록된 이 전적들을 우선적으로 入藏시키고 있다. 현 고려대장경에는 天函부터 英函에 이르기까지 480함 속에 1087부의 불전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거의 개원록에 수록된 경전들이다. 또한 북송관판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387	대승경
388 - 522	대승경 단역
523 - 548	대승율
549 - 646	대승론
647 - 800	소승경

29) 佐藤泰舜, 『經典成立史の立場と天台の教判』 關口眞大編著, 『天台教學の研究』, 462면.

801 - 888 소승경 단역
889 - 942 소승율
943 - 978 소승론
979 - 1087 현성집

고려대장경 구성은 開元釋教錄에 의해 철저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도대로 목록에 따라 단일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고려대장경은 開元釋教錄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후대에 入藏된 경론들로 인하여 목록에 의한 단일한 구성은 깨져 버리고 만다. 현 고려대장경에 1514部가 수록되었다면 이 가운데 1087部만이 개원석교록에 의해 구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여덟 차례 걸쳐 전래된 것을 入藏한 것이다. 따라서 2/3만이 개원석교록에 의해 구성된 것이고 나머지 1/3은 여덟 차례에 걸쳐 入藏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후대에 편입된 전적으로 인해 단일한 목록에 의한 구성조직은 완전히 깨져버린다. 경전 율전 논전이라는 삼장의 형식이 후반부에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구성에 따라 손질해야 할 과제이다.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분류로써 경전을 구성한 것이 신수대장경이다. 이것도 역시 일본찬술부와 같은 보유편이 붙어서 삼장의 고유한 형식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그 단일한 구성과 체재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55권은 아함부, 본연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보적부, 열반부, 대집부, 경집부, 밀교부 등으로 경전을 나누고 있다.

5. 대장경의 구성 특징과 문제점

대장경 구성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대장경은 開元釋教錄과 같은 경전목록에 의거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교판에 의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역대장경의 효시인 북송의 관판대장경의 구성을 고려대장경은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특히 대장경의 특색도 보이는데

거란이나 고려에서 만들어진 대장경에는 禪書를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경향과 풍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판설이 開元釋教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장경 구성에 있어서 교판설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신수대장경에서 현저하다. 신수대장경에서 아함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 화엄부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開元釋教錄의 분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五時설을 끌어다 쓴 것이다.

한글대장경의 구성은 대체로 신수대장경을 번역한 것이므로 대체로 신수대장경의 체재를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구성이 신수대장경에 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글대장경 구성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장경을 어느 범위까지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단지 한글대장경만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세계대장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자 한다면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경전과 티벳장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僞經을 入藏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영락경, 인왕경, 범망경과 같은 주요 경전은 말할 것도 없이 적지 않은 경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不立文字를 종지로 하는 선종의 어록, 논서, 사서 등을 入藏시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史書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나 경교를 배격하는 태도가 대장경의 특성과 정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禪書를 완전히 배제한다면 동아시아 삼국 불교의 동향과 매우 거리가 있는 반쪽 대장경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율론을 제외한 중국 한국 - 일본의 찬술은 배제하더라도 - 의 중국과 한국의 찬술을 단지 시대 순으로 배열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때에는 종파간의 찬술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한 안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불교전서를 대장경 속에 편입해야 할 것인가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수 있다. 우리로서는 한국의 불교찬술은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모두가

入藏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교판설을 반영하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어떤 교판설이라고 해도 종파간에 상충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각 종파가 그 교판설에 맞추어 대장경을 구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불교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교판설을 맞추어 내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대장경을 단지 ‘경전의 총서’로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경전성립의 연원을 아울러 생각해야 하지만 경전이 적어도 깨달음의 보고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다.

6. 한글대장경 구성 방향

결론적으로 한글대장경 구성 방향은,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체재를 전반적으로 따르면, 대체로 무난할 것 같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은 목록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이긴 하지만 후대에 속속 入藏된 것은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큰 과제이다. 또한 고려대장경의 구성은 개원석교록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에 민족적인 자부심을 해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판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 특히 종판은 종파 간의 대립이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교판 가운데에서도 경전에 나와 있는 교판설을 활용하면 교판에 대한 반감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교판 가운데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일체경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는 열반경에 나와 있는 오시설이다. 열반경의 오시설은 화엄으로부터 아함 방등 반야 열반으로 경전군을 엮고 있으므로 지금껏 나와 있는 교판설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체경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교판(敎判)은 중국불교에서 대두된 종파관념과 함께 크게 성장한 것이므로, 자종의 우월성을 입증시키려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판이 원래는 불타의 경설을 나름대로 밝히려는 불교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교

판에 대한 종래의 인식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오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벽이 높다면 차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

첫째, 한국 대장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원효대사의 교판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저술이 온전하게 남겨져 있지 않고 또 단지 몇 개의 저술을 가지고 그의 교판설을 재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 가장 큰 문제는 일관적인 교판설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고려 제관법사의 오시팔교설을 이용하는 것이 대장경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천태종의 교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

셋째, 의천대각국사의 목록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고려대장경에 의천목록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한글대장경이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의천목록과 같은 경록을 중심으로 章疏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신편제종교장총록(이하 의천목록)은 아무래도 諸宗의 敎藏을 모은 것이기에 삼장의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글대장경 구성에 원효대사나 제관법사의 교판설 그리고 의천대각국사의 의천목록 등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지만, 다소 우리가 따르더라도 우리 스님 들의 교판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한글대장경이 지는 뜻을 더욱 배가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한껏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교판, 개원석교록,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한글대장경, 신편제종교장총록(의천목록)